

「천희당시화」에 나타난 근대이행기 시화(詩話)의 계승 및 변용과 그 의미* **

마 윤 지***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전통적 구성과 시론의 계승
 - 1. 시화의 형식과 감화(感化)적 문학관
 - 2. 평어 중심의 시평과 ‘시여기인(詩如其人)’의 태도
- III. 근대적 변용 양상 속 지사(志士)적 시의의 포착
 - 1. 저널리즘과의 결합과 동시대성의 확보
 - 2. 평어의 의미 변용을 통한 지사의 호명
- IV. 나가며

국문초록 | 본 연구는 근대이행기에 출현한 시화 「천희당시화」의 장르작매체적

* 본고에서 활용한 「천희당시화」 텍스트는 『대한매일신보』 및 김주현(2012)의 주석을 참조하여 대조하였음을 밝힌다. (김주현, 「天喜堂詩話와 그 주석」, 『語文論總』 5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271-303쪽.) 번역문은 이승훈의 번역을 따르되 필요시 바꾸어 사용하였다. (이승훈 편, 「천희당시화」, 『한국현대대표시론』, 태학사, 2000, 9-25쪽.)

** 이 논문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관리번호 4120240315002).

*** 馬潤智 이화여자대학교 고전문학 전공 박사과정 nic410@ewha.ac.kr
투고일: 2026. 5. 15. 심사완료일: 2026. 6. 7. 게재확정일: 2026. 6. 25.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6.50.109>

특성과 비평적 지향을 분석하여 그것이 단순한 고전문학 비평서를 넘어 국권 침탈기라는 시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천적 문학으로서 기능하였음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천희당시화」가 전통 시화의 장르적 관습과 방법론을 계승한 양상을 고찰하였다. 「천희당시화」는 시론, 시평, 일화 중심의 잡록적 구성을 취하고 감화적 시가관을 채택하였으며, 평어 중심의 함축적인 시평과 ‘시여기인(詩如其人)’의 태도를 계승함으로써 고전비평 장르인 시화의 형식을 충실히 확보하였다.

이어 3장에서는 저널리즘이라는 근대의 새로운 매체 환경 속에서 나타난 「천희당시화」의 동시대성과 미의식의 변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신채호는 신문 연재 방식을 통해 지식인 사회가 당면한 현안에 집중하였으며, 특히 고전적인 평어의 의미와 미감을 현실로 확장하거나 전복함으로써 「천희당시화」가 시대와 유기적으로 발맞추는 텍스트가 되도록 하였다. ‘웅혼(雄渾)’, ‘웅건(雄健)’과 같은 양강의 미의식은 시대가 요구하는 지사(志士)적 행동의 원동력으로 확장되었다. 그런가하면 ‘한담(閑談)’, ‘염퇴(恬退)’와 같은 전통적인 미덕은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에 대한 비판의 용어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평어의 변주는 궁극적으로 당대의 국난을 극복할 혁명가·선각자적 주체인 지사를 호명하기 위한 「천희당시화」의 비평 방식이었다. 결론적으로 「천희당시화」는 한문과 함께 쇠퇴해가던 시화라는 전통 장르의 잠재력과, 사람과 국가를 감발케 하는 문학의 감화력을 아울러 보여주는 근대이행기의 텍스트로서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 신채호, 천희당시화(天喜堂詩話), 시화, 평어, 지사, 계승, 변용, 근대이행기

I. 들어가며

본고는 우리나라 문학사상 최초의 국문 시화인 「천희당시화(天喜堂詩話)」를 시화의 맥락에서 조명하며 그 특징과 의미를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지하듯이 「천희당시화」 이전까지 시화는 한시(漢詩)에 대한 비평, 작법을 둘러싼 시론, 시 또는 시인에 대한 일화(逸話)를 다루는 장르로서 오랜 시간 향유되었다. 이렇듯 한시 비평 장르였던 시화가 근대이행기인 1909년에

이르러서 「천희당시화」를 통해 국문 시의 가치를 논하는 자리에 소환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천희당시화」는 시평과 시론, 일화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시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시가 사람의 마음을 감화한다는 전통적인 시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천희당시화」의 시평에는 ‘웅혼(雄渾)’, ‘한담(閑淡)’과 같은 고전적인 평어가 등장하는데, 그 사용과 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천희당시화」가 일정 수준 전통 시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 한편 「천희당시화」는 유가 성인에 대한 예찬이나 예술 감상을 위한 시를 선별하는 대신, 무장(武將)과 선각자의 이미지가 강한 시를 선별하였으며, 매체 변화에 적응하여 『대한매일신보』 <문단>란에 연재하며 그 분량을 누적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독자의 반응을 상정하고 또 그것에 반응하기 용이한 이러한 작성 방식은 기존의 시화가 기술된 방식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가진다. 이런 가운데 전통 평어에 대한 재해석을 거쳐 신채호가 호명하고자 했던 지사의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며 당대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시론을 전개하였다. 이렇듯 전통 시화를 계승하거나 변용한 면면이 뚜렷한 「천희당시화」를 조망함으로써 시화사에서 「천희당시화」가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은 유의미하리라 생각된다.

그간 「천희당시화」는 유력한 저자로 알려진 신채호의 행적과 문학관, 국문시론을 중심축으로 시가문학사와 현대비평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¹⁾ 「천희당시화」를 시화로 분류하고 조망한 성과로는 안대회²⁾의 저술

1) 「천희당시화」의 저자 확정 문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바 있다. 본고의 초점은 저자의 문제보다 근대이행기의 시화로서 「천희당시화」가 가지는 이전 시기 시화와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고찰하는 데에 있으므로 저자에 대한 논의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고가 참조한 「천희당시화」 주석본의 저자 김주현이 「천희당시화」의 작자를 신채호로 비정한 결과가 타당하다고 보아 수용하였음을 밝힌다. 자세한 과정은 김주현, 「「천희당시화」의 저자 확정 문제」, 『우리말글』 33, 우리말글학회, 2005, 271-306쪽 참조.

이 있으나, 「천희당시화」를 시화의 관점에서 주목한 바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근대이행기 시화로서 「천희당시화」의 특징을 조망하고 그것이 시화사에서 가지는 의의를 짚고자 한다.

Ⅱ. 전통적 구성과 시론의 계승

1. 시화의 형식과 감화(感化)적 문학관

「천희당시화」는 1909년 11월 9일부터 1909년 12월 4일까지 17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각 연재분을 시화의 1칙으로 본다면 「천희당시화」는 총 17칙의 비교적 짧은 시화이다. 아래의 표는 「천희당시화」의 내용을 각 칙별로 정리한 것이다(표 1).³⁾

〈표 1〉 「천희당시화」의 구성

회차	구분	연재일	핵심 내용
1	시평/일화	1909.11.9.	최영(崔瑩)의 시 두 수
			세간에 전해지는 민영환에 대한 노래와 박제순(朴齊純)의 일화
2	시론	1909.11.11.	시와 국민성의 관계, 한시가 아닌 국시의 가치

2) 안대회, 『한국 시화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4.

3) 「천희당시화」에서 특정 작가의 작품으로 거론된 것 중 작가가 다른 경우가 있다. 1칙에서 제시된 최영의 시가 각각 박팽년과 안평대군으로 알려진 경우가 그 예이다. (김주현(2005), 앞의 글, 272-273쪽.) 본고는 「천희당시화」의 시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그 서술에 따르기로 한다.

3	시평	1909.11.12.	우리나라 시 중 가장 오래된 시
4	시론/시평	1909.11.13.	정을 솔직히 논한 시의 중요성, 남이(南怡)와 최영의 한시
5	일화	1909.11.14.	김윤식(金允植)의 사대주의
6	시론	1909.11.16.	시의 목적과 방향성
7		1909.11.17.	국문시의 조건
8	일화	1909.11.18.	전봉준(全琫準)의 일을 논한 작자미상의 시
9	일화/시론	1909.11.20.	한시를 짓고 동국시계혁명(詩界革命)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던 어느 객(客)의 이야기
			동국시계혁명의 조건 1
10	시론	1909.11.21.	동국시계혁명의 조건 2
11	시론	1909.11.23.	시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12		1909.11.24.	시의 감화력과 시·국가 관계
13	시평/시론	1909.11.25.	당대 유행하던 시에 대한 비판과 시·국가 관계의 중요성, 지사(志士)에 대한 호명
14	시평	1909.11.26.	신광하(申光河)의 시에 나타난 선각자적 면모
			홍선대원군이 청나라에 잡혀 있을 때 향간에 유행하던 시
15	일화/시평	1909.12.2.	홍경래의 유년 시절 일화와 그가 쓴 시, 이항(李滉)·김유기(金裕器)·윤선도(尹善道)의 단가
16	시평	1909.12.3.	임춘(林椿)의 시에 드러난 선각자적 면모
17	시론	1909.12.4.	시의 위대함

시화를 크게 시평, 시론, 시에 대한 일화(逸話)의 3요소로 분류할 때, 「천희당시화」의 내용 또한 세 가지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연재 회분을 맞추어 분절점이 있다는 특수성을 제외하면 「천희당시화」는 일반적인 시화의 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다. 시평과 시론, 일화가 뒤섞여 일정한 순서나 구획 없이 배치된 듯한 양상은 「천희당시화」가 연재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시화가 잡록(雜錄)적인 구성을 띠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그러나 각 칙이 아무런 기획과 순서가 없이 배치되었다고 함은 아니다.

「천희당시화」는 이전 시기 시화에서 산견되는 서문이나 발문은 없는 시화이다. 따라서 저자의 창작 의도나 목적의식, 집필 소감, 주위 사람의 의견 등 작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적인 언술은 문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여기서 「천희당시화」의 각 칙의 배치 및 특정 언급의 빈도에 주목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듯 「천희당시화」의 주요한 시론은 상무 정신과 강무한 시의 중요성이다. 그런데 이를 논하는 칙이 작품의 주요 부분인 도입부와 결말부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내용적 측면에서 파악된 「천희당시화」의 주장이 특정 부분에 배치되어 있다면 이는 작자의 기획 의도가 반영된 구성일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먼저 1칙에서 신채호는 최영의 시 두 수를 제시한 뒤 그것의 글자(其語)와 어조(其調), 뜻(其意)을 평가하면서 「천희당시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정립하였다.

虎頭將軍 崔瑩氏가 累次 支那 日本 等 外寇를 鏖退하고 其百戰百勝의 餘威를 席하야 大兵으로 遼瀋에 驅入하야 高句麗 舊疆을 恢復하랴 하다가 時運이 不幸하야 大志를 未成하고 反히 刑戮에 就하미 至今까지 將軍의 事를 談하논 者ㅣ 慷慨의 淚를 不灑하논 者ㅣ 無하니라. 頃者에 一友人이 將軍의 詩 二首를 錄送하엿는디 其語가 莊潔하고 其調가 激烈하고 其意가 雄渾하야 足히 將軍의 人格을 想像하니라.

其一 曰

가마귀 눈비마자, 희는 듯 검노매라.

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으랴.

님向흔 一片단心, 가설줄이 잇스라.

其二는 曰

눈마자 휘엿노라, 굵은솔 웃지마라.

春풍에 피인꽃이, 每樣에 고을소나.

풍颺颺 雪紛紛 흐제, 네야나를 부르리라.

聲音의 道가 人을 感흥이 深호도다 往年에 朴齊純 李址鎔 등이 其政權을 既失호고 心火鬱鬱호 中에 消日호기 爲호야 琴劄을 携호고 龍山江정에 伴往호더니 時에 秋葉이 正황호야 圍山이 蕭瑟호고 夕陽이 江면에 倒映호야 琉璃世界를 作호니 失意者의 感懷를 助호지라. 舟數巡에 蘓島날당牌 數人을 招호야 歌 一曲을 奏케 호더니 其歌에 有云호되

處子죽은 鬼신은, 道令의 房으로 모라너코,

道令죽은 귀신은, 處子의 房으로 모라너코,

우리죽은 귀신은, 民忠正大監 녀을싸러라.

호엿더라. 齊純이 此를 聽호더니 愀然히 節을 격호며 曰

「人生이 誰가 一死가 無호리오만은 彼와 如히 死所를 得호 者 | 능히 幾人인 고?」

호고 手中의 劄을 擲下호엿다 云호니 噫라 彼 朴氏가 萬一 五條約 以前에 此等歌를 早聞호엿스면 民忠正의 녀을 隨호엿슬는지.

이어서 2칙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며 시와 국민성의 밀접한 관련성과, 강무한 정신을 위한 강무한 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詩壇 者는 國民言語의 精華라. 故로 强武호 國民은 其詩부터 强武호며 文弱호 國民은 其詩부터 文弱호나니 一國의 盛衰治亂은 大抵 其國詩에서 可驗호 지오. (2칙 중)

신채호는 최영의 시를 장결(莊潔)하고 격렬(激烈)하며 웅혼(雄渾)하다고 평가하였다. 이 평가에 사용된 글자들은 대부분이 역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글자이다. 이어서 ‘강무(强武)한 시’에 대해 언급한 2칙은, 1칙에서 최영의 시에 사용하였던 평어들과 결을 같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칙의 시선(詩選)을 뒷받침하고 시화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연이어 배치한 것이다. 즉 「천희당시화」는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도입부에서 그 시적 지향을 강무한 시로 설정하였으며, 시화를 여는 최영의 시는 그 전범으로서 수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향은 전체 17칙 중 최영, 남이, 전봉준, 홍경래 등 무장(武將) 혹은 그에 준하는 인물들과 관련된 시를 선별한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7칙이라는 단형에도 불구하고 「천희당시화」에서 다루는 인물군은 장군이거나 무장 활동에 가담했던 이들이 상당수이다. 더불어 그 중에는 외국을 정벌하자고 주장했던 임춘과 같은 이도 포함되어 있어, 무력(武力)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인 가능하다. 요컨대 ‘문약(文弱)하지 않은 시를 도입부에서부터 여러 칙에 걸쳐 수록함으로써 이 시화에서 지향하는 시를 작품 전반에 걸쳐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도입부의 1칙과 2칙에는 「천희당시화」의 기본 전제가 내재되어 있다. 바로 시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시가의 감화력(感化力)에 대한 긍정이다. 우선 1칙에서 최영의 시에 대해 ‘聲音의 道가 人을 感함이 深하다’라고 한 것에서부터 이 태도가 전면화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후 서술되는 박제순의 일화이다.

1칙에는 최영 시에 대한 시평 이외에 이야기가 더 삽입되어 있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박제순(朴齊純)과 이지용(李址鎬)이 어느 날탕패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이다. 매국노인 박제순이, 국권 침탈에 개탄하며 자결한 민영환(閔泳煥)의 님을 기리는 노래에 추연히 장단 맞추며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았다는 것이다. 시에 깊이 동화되어 자신과 상반된 입장의 인물에 대한 노래를 들으며 박자를 타다 못해 쥐고 있던 술잔마저 탁 내려놓을

지경이었다는 생생한 장면 묘사는 시화에서 일화를 제시하는 전형적인 서술 양상이다. 더불어 이들이 을사조약 이전에 그 노래를 들었다면 민영환의 뜻을 따랐을지 모른다는 신채호의 아쉬움은 작자의 의견을 덧대는 시화의 문법적 요소라 할 만하다.

박제순의 일화에서 신채호가 내비친 감상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그는 을사오적(乙巳五賊) 중 하나인 박제순일지라도 충신에 대한 절절한 노래를 언제 들었느냐에 따라 매국 행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상상하였다. 이에 박제순이 노래를 좀 더 일찍 들었으면 어땠을지 상상해본 것이다. 즉 시가의 감화력에 대한 신채호의 확고한 믿음을 박제순의 일화로써 제시한 후, 뒤이은 2칙에서 그 믿음을 전제로 ‘一國의 盛衰治亂은 그 國詩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子規야 우지마라.

一句를 微諷함이 感淚가 潛然하야 詩가 人情을 感發함에 如此히 不可思議의 能力이 有하리라. (12칙 중)

위와 같이 시가와 감정의 관계를 둘러싼 이러한 믿음은 텍스트 내에 산견되며, 결말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천희당시화」의 결말부인 17칙에서 신채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自來 泰東人은 詩人의 地位를 低看하야 詩가 風化에 無關하며 政教에 無關하고 但只 黃葉 村席門中에서 虫鳴蛙叫하느 一個 世外棄物로 知하니 嗚呼라. 此는 誤解의 大誤解로다. (···) 故로 大宗教家가 教를 布함에 爲先 詩歌에 從事하야 此로써 人心을 移改하나니 (17칙 중)

신채호에 따르면 동양에서 시인의 지위는 저평가되어 왔다. 시는 사람을

교화하는 힘이 없어 정치, 종교와 무관하며 단지 전원의 풍경을 묘사하는 것이라고만 여겨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반대하며 ‘대시인(大詩人)은 곧 대영웅(大英雄)이고 대위인(大偉人)이며 역사상의 거물(巨物)’이라는 원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때 그의 주장은 근거 없는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엄연한 사회적 현상을 근거로 한다. 큰 종교들이 포교할 때에는 먼저 시가를 활용하여 인심을 사로잡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채호는 시가 마음을 일으키는 능력을 강조하고자 했다.

17칙이 기획된 분량인지, 당대의 불안정한 상황에 의해 의도치 않게 미완된 분량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천희당시화」의 시작부에서 감화적 문학관과 강무한 시적 지향이 빈번히 나타난다는 점만큼은 저자의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도입부가 결말부인 17칙에서 수미상관을 이루는 정황은 우연의 산물이라기보다 어떤 식으로든 의도된 결과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천희당시화」는 연재 회차 기준 총 17칙의 짧은 시화로, 시론과 시평, 일화의 3요소가 혼합된 잡록적인 구성을 보인다. 또한 시를 제시한 뒤 작품이나 시인에 대한 저자의 소회를 기술하거나, 일화의 장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여러 인물과 일화, 시를 통해 반복하며 시화의 색깔을 확실히 하였다. 특히 고전문학 비평에서 전승되어 온 시가의 감화력에 대한 믿음은 시화의 필법과 상통한다. 시가 국민정신을 형성하고 국운을 결정하므로 문약한 시를 지양하고 상무 정신이 담긴 시를 국시로 삼아야 한다는 그의 시론은 예전부터 전해지던 감화적 시가관을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평어 중심의 시평과 ‘시여기인(詩如其人)’의 태도

앞서 「천희당시화」의 선명한 시론이 시화의 전통적인 구성 방식과 문학관

을 따라 서술되었음을 살폈다. 여기서는 나아가 「천희당시화」의 비평 방식과 태도 역시 전통적인 시화의 방법론을 계승하였음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동양의 문학비평, 특히 시화에서는 평어 중심의 인상비평이 주류를 이루었다. 작품을 제시한 뒤 그에 대한 저자의 평가를 압축적인 비평 용어으로써 전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평어들이 『이십사시품(二十四詩品)』에서 스물네 종의 시격으로 설명되기도 했던 만큼, 특정 글자와 용어는 그 자체가 작품을 형용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도구였다고 할 수 있다. 한두 글자만으로 시에 대한 평가를 집약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 이 방식은 「천희당시화」에서도 활용되었다.

其語가 莊潔하고 其調가 激烈하고 其意가 雄渾해야 足히 將軍의 人格을 想像할너라.

이상은 1칙 중 최영의 시를 평가하는 대목이다. 신채호는 최영의 시 전문을 싣고 그 언어와 가락, 뜻에 대해 각각 평어를 붙였다. 그가 채택한 ‘장결(莊潔)’, ‘격렬(激烈)’, ‘웅혼(雄渾)’은 양강(陽剛)과 음유(陰柔)의 두 가지 풍격 중 양강에 가깝다. 모두 장수의 기개와 기세를 묘사할 만한 글자가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중 ‘웅혼’은 『이십사시품』의 첫 번째 시격으로 수록된 전형적인 평어이다. 시화의 첫 칙에서부터 고전적인 평어를 통해 최영의 시를 평가하였을 때, 독자에게 그 시평은 주관적이고 특수한 신채호만의 비평이 아니라 고전문학의 장에서 최영의 시가 위치하는 곳을 가늠할 수 있는 보편적인 비평이 될 수 있다. 누적된 시평의 흐름 속에서 웅혼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던 여러 작품 가운데 최영의 시를 자리 지우게 되며, 그를 통해 「천희당시화」가 지향하는 시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저자와 독자 간에 합의된 상식의 토대가 있다는 정황이 1칙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음은 「천희당시화」 또한 고전적인 방법론에서 이탈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최영은 짧은 분량 내에서도 1칙 외에 재차 언급되는 주요 작가이지만 정작 신채호는 그의 시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석과 비평을 기술하지 않았다. 이는 고전문학 비평의 관점에서는 이미 세 개의 평어를 통해 시평이 충분히 완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평어가 함축하는 의미를 독자가 주지하리라는 믿음의 방증이며, 이러한 믿음이 가능했던 이유는 기존부터 이어지던 평어 중심의 시평 문화라는 것이다.

13칙에서도 이러한 비평 방식이 반복된다. 당대에 전해지던 시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적어둔 대목인데 그 내용이 자세하지 않고, 다만 ‘한담(閑談)’, ‘방광(放狂)’, ‘음탕(淫蕩)’, ‘염퇴(厭退)’라는 수식어으로써 구체적 설명을 대신하였다.

國詩로言亨玆

南薰殿 달발근데 八元八凱 거나리시고
亨 閑談의 詩뿐이며,

말업는 靑山 態度업는 流水
란 放狂의 詩뿐이며,

말은 가자고 네굽을 쌍쌍치는듯 님은잡고 落淚흔다
亨 淫蕩의 詩뿐이며,

風波에 놀넨沙工 비프라 말을사니
亨 厭退에 詩뿐이오. (13칙 중)

13칙에 제시된 네 작품의 시구에 대해서 무엇이 한담하고 방광하며 음탕하고 염퇴하다는 것인지 자세한 분석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시에 대한 평가를 적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휘 선택의 절묘한 정도나 기교에 대한 분석 등

구체적인 문학적 검토는 생략되어 있다. 다만 작품에 대한 시화의 입장과 평가는 오직 ‘한담’, ‘방광’, ‘음탕’, ‘염퇴’의 네 평어로써 전달된다.

‘음탕’의 경우 고전문학 비평에서 자주 활용되는 평어이고 나머지 단어들에 대해서도 각 글자들이 함의하는 바가 있어 신채호의 평가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결국 글자의 의미와 그것의 용례를 바탕으로 시에 대한 평가를 독자가 느낌 대 느낌으로 이어받는, 평어 활용의 시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1칙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설명, 시화 작자의 지향을 함축적인 표현으로써 전하는 인상비평의 방식이다.

한편 동양미학의 특징인 ‘시여기인(詩如其人)’의 사유⁴⁾는 평어 중심의 문학비평 방법이 작품만이 아니라 작가에게 확장 적용되는 양상을 촉발하기도 하였다. 이는 시화에서 작품이 작가의 성품에서 비롯한 결과라거나, 작품을 보면 작가의 성품을 알아볼 수 있다고 서술하는 등 작가와 작품의 상호 교섭 관계를 전제하는 모습으로 확인된다.

신채호는 동양 고전 비평에 익숙한 식자층으로서 이와 같은 비평 방식과 인식을 「천희당시화」 내에서 누차 드러냈다.

一友人이 將軍의 詩 二首를 錄送ᄃᆞᆫ것이니 其語가 莊潔ᄃᆞᆫ고 其調가 激烈ᄃᆞᆫ고 其意가 雄渾ᄃᆞᆫ야 足히 將軍의 人格을 想像ᄃᆞᆫ너라.

其一 曰

가마귀 눈비마자, 희느듯 검노매라.

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으랴.

님向ᄃᆞᆫ 一片단心, 가설줄이 잇스랴.

其二 曰

4) 조민환, 「선비들의 예술세계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22, 한국유교학회, 2005, 411쪽.

눈마자 휘엿노라, 굽은술 웃지마라.
春풍에 피인꽃이, 每樣에 고을소냐.
풍颺颺 雪紛紛 흘제, 네야나를 부르리라. (1칙 중)

신채호는 최영의 시를 보면 ‘죽히 장군의 인격을 상상’할 수 있다며 ‘장결’, ‘격렬’, ‘웅혼’으로 형상화된 양강의 미의식을 최영의 인품으로까지 확장하였다. 여기서 시에 대한 평가가 작가에 대한 평가와 연결될 수 있는 근거는 다름 아닌 시여기인의 태도이다. 기개와 충절이 담긴 강무한 시라면 그 작가의 인품 또한 그럴 것이며, 반대로 작가의 인품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의 시 또한 훌륭한 것이리라는 오랜 인식⁵⁾이 기저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최영의 인품에 대한 평가는 단지 그에 대한 신채호의 태도에 의해서만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최영의 인품을 상상할 수 있다는 서술 이후에 제시된 시구는 독자에게도 ‘상상’을 촉구하여, 독자는 자연히 최영의 인품을 시조 속 ‘가마귀’나 ‘야광명월(夜光明月)’, ‘굽은술’과 같을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작품에 대한 평가를 작가의 인품으로 확장하고 작가의 성격을 짐작할 단서를 직접 제시하는 것은 이미 여러 시화에서 행해진 바이다.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은 15칙에서도 나타난다.

洪景來 年十餘에 鄉塾에 就호야 遊學호더니 一日은 其師가 危欄에 跨호엿거
닐 景來가 手로 擠호는지라. 師가 大驚 回顔호는즉 笑曰
「時勢가 하도 조아 辜負호기 不可호 故니이다.」
호더라 其童年에 著호 科詩 題曰 送荊軻 一句가 人間에 流傳호는디 曰

秋風易水壯士峯 白日阿房秦皇頭

5) 위의 글, 410쪽.

라 흥엿스니 其詩가 政히 其人과 酷肖호도다. (15칙 중)

홍경래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시 「송형가」의 제목 속 형가(荊軻)는 연나라 태자 단(丹)의 사주로 진왕(秦王)을 암살하려다가 죽임을 당한 자객이다. 그는 진나라로 떠나기 전 역수(易水)에서 “바람결 쓸쓸해라 역수 물 차가운 데, 장사 한번 떠나 다시 오지 않으리.(風蕭蕭兮易水寒 壯士一去兮不復還)”라는 노래를 부른 뒤 떠났다는 고사의 주인공이다.⁶⁾ 15칙에 서술된 홍경래의 과시(科詩)는 형가의 고사 속 결연한 모습을 모티프로 하여 고사에 익숙한 독자라면 시와 작가를 둘러싼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잘 아는 신채호는 홍경래에 대해 평가하면서 그의 행적과 역사를 길게 읊고 어떤 대목이 그의 훌륭한 면을 방증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결연한 이의 모습을 형용한 그 시가, 그 작가인 홍경래와 ‘혹초’, 즉 매우 닮았다고 짧게 단언하였다.

이처럼 신채호가 작품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기보다 고사를 통해 시와 작가가 공유하는 미감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시가 작가의 내면의 발현이라고 보는 시여기인의 관점이 투영된 결과이다. 최영에게서 웅혼한 기상을 읽어내었던 것처럼 홍경래에게서 신채호는 고사 속 형가와 같은 기개를 읽어낸 것이다. 일견 논리적 비약 같은 이 독법은 「천희당시화」만의 특징이 아니라 이전부터 시화에서 수행한 고전문학 비평의 일환이다. 동아시아 문학의 작가와 독자로서 신채호와 독자들은 동일한 논리 기반 위에서 「천희당시화」를 소화했던 것이다.

종합하자면 「천희당시화」는 시화의 보편적인 구성 방식을 취함과 동시에 시의 감화력을 중시하는 시가관을 바탕으로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고전 시화의 틀을 유지하였다. 나아가 작품을 평가하는 비평의 도구로써 평어 중심의

6) “형가”,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접속일: 2026.2.14.

인상비평 및 시여기인의 태도를 견지하여 동양 고전문학 비평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천희당시화」가 내외적으로 시화의 전통을 계승한 면이 뚜렷하다면, 시가 국운을 결정한다는 계몽적 가치관은 시여기인을 시여기국(詩如其國)으로 확장한 사고라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근대적 변용 양상 속 지사(志士)적 시의의 포착

1. 저널리즘과의 결합과 동시대성의 확보

이 장에서는 「천희당시화」가 근대이행기에 출현한 시화로서 기존 시화의 전철에서 벗어난 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앞서 언급했듯 「천희당시화」는 전통 시화를 계승한 면이 선명하지만 한편으로 근대이행기의 국내외적 상황에 발맞추어 새로운 구성과 시론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용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저널리즘의 출현 및 결합으로 인한 저술 방식의 변화이다.

기존 시화가 개인 문집의 형태로 서술유통된 데 비해 「천희당시화」는 약 한 달 간 『대한매일신보』 <문단>란에 연재되었다. 신문 연재 방식의 장점은 작자가 집필 과정에서 독자의 반응을 살펴거나, 집필 도중에 새로 대두한 문제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사를 논하고 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가에게 이점이 주어진다. 신채호는 이러한 매체의 속성을 활용하여 「천희당시화」를 구성하였다.

우선 시화가 다루는 인물 구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천희당시화」에는 17칙이라는 짧은 분량에 비해 많은 수의 당대 유명 인사나 문제적 인물, 새로 알려진 서양 작가를 수록하였다. 이는 신라 시대 무렵부터 당대에 이르는 작가와 작품을 고루 수록하려는 기존 시화의 경향과는 사뭇 다른

점이다. 신후담(愼後聃)과 같이 조선의 사대부들은 한창 학문을 쌓을 시기인 10대의 젊은 나이에 시화를 집필할 때에 한두 칙칙이라도 여성시, 동시(童詩), 외국 시 등을 수록함으로써 구색을 갖추고자 했다. 따라서 인물과 작품의 통시적 구성은 시화의 관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천희당시화」는 그러한 풍조에 부합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간지의 독자들이 알 법한 동시대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해당 인물에 대한 논의를 시사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론을 전개하는 양상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예시가 1칙의 박제순 일화이다. 시가가 강한 감화력을 지녀서 그것이 매국노의 마음조차 돌렸을지 모른다는 상상력이 독자에게 원활히 수용되기 위해서는 박제순과 민영환에 대한 독자의 인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죽은 귀신은 민충정대감 뉘을 따르라’는 세간의 노랫말에 박제순의 마음이 움직인 일화에는 ‘민충정대감’, 즉 민영환에 대한 세간의 인식과 노래가 세상에 불리게 된 경위 등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이는 독자가 박제순의 매국 행위와 민영환의 충신의 면모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리라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당시 민영환은 을사조약 체결 직후 집에서 자결한 후 항일과 애국계몽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되어 「혈죽가(血竹歌)」류 시가의 모티프가 되었다.⁷⁾ 그의 죽음은 1906년 무렵 다수의 혈죽 모티프의 시가가 신문에 집중적으로 투고되는 현상을 촉발하였다. 더욱이 「천희당시화」의 연재처인 『대한매일신보』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논설을 싣기도 했던 만큼⁸⁾ 「천희당시화」의 독자는 민영환과 그에 대한 인식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시화의 도입부에서 시사(時事)적 인물이 소환된 것은 일간지라는 매체와 결합한 「천희당시화」의 특성이며 전략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다. 즉 독자의 호응이 활발한

7) 박애경, 「민충정공 담론과 <혈죽가>류 시가 연구」, 『우리어문연구』 34, 우리어문학회, 2009, 162쪽.

8) 위의 글, 180쪽.

사회 현상으로 이어진 사례 속 등장인물과, 그의 대적점 격인 인물의 언급을 1칙에 배치한 것은 독자의 참여를 염두에 둔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로 다른 책에서 김윤식(金允植), 전봉준(全琫準), 홍선대원군, 홍경래(洪景來) 등 당대에서 멀지 않은 시기의 인물을 삽입하여 인물군을 풍부하게 구성하되 그 성격이 통시적이기보다 근대에 집중된 양상을 띠는 점은 특징적이다.

한편 「천희당시화」에도 셰익스피어와 단테 등 외국 문인이 짧게나마 언급되어 있어 외국 작가를 수록한 전통 시화와 얼마간의 접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들은 근대이행기에 우리나라에 외래 지식이 유입되면서 새로이 알려진, 식자층에게도 상당히 생소한 작가들이었다.⁹⁾ 이들을 거론한 것에서 「천희당시화」가 단지 외국 문인을 삽입하여 시화를 풍부하게 구성하려 한 것이 아니며, 동시기의 지식 기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단테에 대한 간접 평가는 「천희당시화」의 지향점과 밀접하여 중요한 대목으로 꼽을 수 있다.

余가 일즉 先生으로써 伊太利 詩人 단테의게 比호나 然이나 단테는 其一寸의 筆下에 能히 瑪志尼를 産出호야 舊羅馬의 榮光을 挽回호였거늘 先生은 死後 六七百年에 國은 依舊히 弱호고 民은 依舊히 劣호니 先生의 目이 將且 地下에서 不瞑호진저. (16칙 중)

신채호는 단테를 고려 시기 문인인 임춘에 직접적으로 비하였다. 단테가 남긴 글을 통해 마치니가 감화하여 이탈리아의 혁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임춘의 시문에도 그와 같은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임춘의 시문은 그의 사후 혁명가를 양성해내지 못했고 이에 우리나라는

9) 김주현(2005), 앞의 글, 296쪽.

6, 7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약하다는 차이가 있었다. ‘선생의 눈이 장차 지하에서도 감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감상은, 임춘 시의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혁명가가 당대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절망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단테는 서양 중세의 작가이지만 기존 시화의 세계에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 새로운 작가이다. 비록 그 작품을 논하지 않더라도 그의 글이 혁명가를 배태하는 씨앗이 되었다는 신채호의 평에서 독자는 단테의 작품이 지닐 법한 색채를 어림잡고 그를 바탕으로 시화의 논조를 파악하게 된다. 이역의 문인이 수백 년 후 이탈리아의 걸출한 혁명가의 배출에 기여하였다는 신채호의 서술은 단지 외국 문인을 소개하거나 비평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곧 시와 시인의 가치를 폄하해 온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 의식의 발로이며, 시가 국가의 운명을 견인할 힘이 있다는 「천희당시화」의 핵심 논지를 드러내기 위한 수준 높은 비평이다.

大詩人이 卽 大英雄이며 大詩人이 卽 大偉人이며 大詩人이 卽 歷々上의 一巨物이라. 故로 亞寇馬 陶淵明輩가 비록 山林에 居호야 足跡이 世에 不出호였스나 其著호는 바 詩集이 一世를 風動호야 人心을 支配호에 至호니 大抵 變土의 舌과 俠土의 劍과 政客의 手腕과 詩人의 筆端이 其效用의 遲速은 異호나 世界를 陶鑄호는 能力은 一이라. (17칙 중)

17칙에서 그는 동양에서 시인의 역할이 줄곧 무시되어 왔음을 한탄하고 그것을 반박하고자 ‘아구마와 도연명의 무리’를 들었다. 여기서 아구마가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그들을 소환한 문면의 맥락이다. 신채호는 이들이 은거한 시인이었음에도 ‘세상을 움직이고 인심을 지배’하는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가 시의 역할로서 지목하고자 했던 것은 당대 현실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였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마침내 국운을 들쭉날쭉할 수 있는 혁명의 힘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 역할은 작품이 존재하는 것만

으로는 수행될 수 없다. 단테의 시문을 보고 수백 년 후 혁명가의 역할을 자처한 마치니처럼 임춘의 시문을 보고 누군가 나서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여전히(依舊히)’ 약하고 열등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신채호는 시인의 가치를 절하해 온 조국의 풍토를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글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스스로 행동하여 나라를 구하는 혁명가, 곧 지사(志士)를 시인의 표상으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혁명가의 출현을 위해서 시를 진중히 대하지 않는 태도를 쇄신할 것을 당대의 독자에게 촉구하였다.

「천희당시화」의 동시대성은 인물 구성뿐 아니라 주제의 선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바이다. 최신 소식과 담론을 공유하기 용이한 신문 연재물로서 「천희당시화」는 당대 지식인 사이에서 치열한 논의가 오갔던 주제를 수록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9칙의 동국시계혁명(東國詩界革命)에 대한 어느 손님과의 일화 및 시평이다.

客이 漢詩 數首를 携고 余를 示하느니 句句에 新名詞를 참入하야 成하리라. 其中

滿壑芳菲平等秀. 閨林禽鳥自由鳴.

이라 云하 一聯을 指하여 曰

「此兩句는 東國詩界革命이라 可稱호리라.」

하고, 怡然히 自得의 色이 有하거늘 余ㅣ 曰

「吾子の 用心이 良苦하도다만은 此로 支那詩界의 革命이라 稱호니 可커니와 東國詩界의 革命이라 云호는 不可하니 蓋東國詩가 何호면 東國言, 東國文, 東國音으로 製호 者가 是호 東國詩革命家가 誰호면 東國詩 中에 新手眼을 放호는 者가 是라 홀지어날 今에 子가 漢字詩를 作호고 貿然히 自信하여 曰 我가 東國詩界革命家라 하니 抑호愚悖함이 아닌가.

손님은 ‘자유’와 ‘평등’과 같은 당시의 신조어를 넣어 지은 한시 1언을 내 보이며 스스로 이것이 동국시계혁명이라고 칭할 만하다며 득의양양했다.

그러나 신채호는 이를 단호히 부정하며, 우리말이 아닌 한문시는 결코 ‘동국’, 즉 우리나라의 시계혁명이 될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한문이라는 외래의 언어 형식을 의구심 없이 차용하고서는, 시대를 반영한 개념어를 활용하였다는 이유로는 결코 혁명적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吾子가 萬一 詩界革命者가 되고져 홀진디 彼 阿羅郎 寧邊東臺 等 國歌界에
向호야 其頑陋를 改革호고 新思想을 輸入홀지어다. 如此호여야 婦女가 皆
吾子의 詩를 讀호며 兒童이 皆 吾子의 詩를 誦호야 全國의 感情과 風俗이
丕變되야 吾子가 詩界革命家 始祖가 되려니와 苟或 漢字詩를 將호야 此로
國人之 感念을 興起코즈 호라다가는 비록 索士比亞(英國 大詩人)의 神筆을
揮홀지라도 是는 幾個人의 閒坐諷詠호에 供호 而已니 何故로 云然호 何면
卽 彼가 東國語 東國文으로 組織호 東國詩가 아닌 故니 吾子의 用心은 良苦
하도다만은 其計가 實誤로다.」

호디 客이 憮然良久에 退曰

「先生의 言이 果然호다.」

호더라

9칙에 이어 다음 날인 1909년 11월 21일에 곧바로 연재된 10칙에는 동국 시계혁명의 조건이 더욱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결국 동국시계혁명이란 부녀와 아동이 모두 읽을 수 있는 국문시를 통해 낡은 사상과 관습을 개혁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신채호의 주장은 9칙과 10칙의 지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나의 주제를 둘러싼 손님과의 긴 대화를 이들의 연재분에 나누어 서술한 것은 연재처인 『대한매일신보』 <문단>란의 지면의 물리적 제약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신문 연재는 할당된 공간에 맞추어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는 매체적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술 공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동국시계혁명에 대한 손님과의 대화가 이토록 자세하고 생동감 있는 대화체로 서술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 신채호가 동국시계혁명이라는

주제를 당대 문단이 직면한 중차대한 안건으로 인식했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천희당시화」가 내포하는 동시대성은 이렇듯 당대의 현안에 대한 높은 주목도에서 잘 나타난다. 신채호는 저널리즘의 출현이라는 근대의 현상 가운데 신문 연재 방식이라는 유례없는 시화 집필 양식을 채택하여 작가와 독자가 직면한 문제를 논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동시기의 지식인들이 열띤 논쟁을 벌였던 국어국문운동과 민중 계몽을 시화의 중심 주제로 끌어올 수 있었다. 이로써 「천희당시화」는 단지 여러 시기의 작가와 작품을 비평한 수많은 시화 중 하나가 아니라, 당대의 현실 문제를 논하고 독자의 행동을 촉구하여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을 지닌 텍스트로 거듭날 수 있었다.

2. 평어의 의미 변용을 통한 지사의 호명

「천희당시화」가 동시기와 긴밀히 조응하는 특성으로 인해 생겨난 또 하나의 주요 특징은 미의식의 변용이다. 이미 앞서 1칙에서 최영의 시에 대해 ‘장결’, ‘격렬’, ‘웅혼’의 평어를 거론하였음을 보인 바 있다. 「천희당시화」 역시 시화로서 작가나 작품에 대해 평어에 함축된 밀도 있는 비평의 기초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전통 시화에서 통용된 평어들이 「천희당시화」에 이르러 의미가 유지되거나 재편되는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웅혼’, ‘격렬’과 같이 기존의 긍정적인 미의식이 당대 현실과 맞닿아 유자·확장되거나, ‘한담’, ‘염퇴’와 같이 전통적으로 미덕으로 간주되었던 말이 부정적인 평어로 변모하기도 하였다. 즉 전통 시화에서의 미의식은 「천희당시화」의 주제 의식이 현실과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재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양상이 보인다.

먼저 평어의 긍정적 의미의 지속 및 확장의 면모부터 확인해보고자 한다.

1칙에 나열된 ‘장결’, ‘격렬’, ‘웅혼’은 규모가 크고 씩씩하며 거침없는 시적 이미지, 즉 양강의 이미지와 결부된 평어이다. 특히 ‘웅혼’의 경우 당나라 무렵부터 이미 풍격의 전형 중 하나로 자리잡아 오랜 시간동안 활용되었다.¹⁰⁾ 여러 비평가들이 각기 풍격을 나누어 제시할 때 ‘웅혼’은 중시하였음을¹¹⁾ 고려하면 웅혼이라는 평어의 위상은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다.

최영의 시가 ‘웅혼’하다는 신채호의 시평은 일차적으로 장군인 최영의 고결하고 기개 높은 인품이 반영된 결연한 시라는, ‘웅혼’에 대한 축적된 미의식에 의해 한층 구체화된다. 그러나 다른 책을 함께 살펴보면 신채호가 활용하는 ‘웅혼’의 평어는 미학적인 단계에 그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是以로 其詩가 武烈하면 全國이 武烈홀지며 其詩가 淫蕩하면 全國이 淫蕩홀지며 其詩가 雄建하면 全國이 雄建홀지며 其詩가 柔弱하면 全國이 柔弱홀지며 其他 勇悍猖狂 猛奮纖劣 或善 或惡 或美 或醜가 無非詩歌의 支配力을 受호는 바인디 試思하라. (12칙 중)

신채호는 시화 전반에 걸쳐 강약(強弱)과 우열(愚劣)처럼 강한 대비를 통해 비평의 색채를 선명히 드러내려 하였다. 시와 국운의 관계를 논하는 12칙에서도 ‘무열(武烈)’과 ‘음탕(淫蕩)’, ‘웅건(雄健)’과 ‘유약(柔弱)’을 교차함으로써 이를 더욱 뚜렷이 보이하고자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웅건’이 긍정적인 이미지이자 ‘유약’의 대비 개념으로서 사용된 것에서 신채호가 지시하는 ‘웅혼’의 의미와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시의 성격이 국운을 결정한다는 그의 서술은 즉 나라가 무열하고 웅건하려면 시가 무열하고 웅건해야 하며, 나라가 음탕하고 유약한 이유는 시가 그러

10) 박홍준, 「‘웅혼(雄渾)’ 풍격의 의미 고찰」, 『중국문학이론』 1, 한국중국문학이론학회, 2002, 217쪽.

11) 위의 글, 223쪽.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따른다. 이 논리로 인해 국운 역시 시의 평어로서 함축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핵심적이고 간결한 표현으로서 소환된 단어가 ‘웅건’이라는 점은 두 가지의 시사점을 지닌다.

첫 번째는 ‘웅건’ 및 그와 비슷한 맥락의 ‘웅혼’이 다른 많은 긍정 어휘보다 우선하여 소환될 만큼 「천희당시화」의 지향을 함의한다는 점이다. 몇 개의 간결한 인상 평어를 통해 시와 국운을 논하는 부분에 ‘웅건’이 등장하는 양상은 시화의 첫 칙에서부터 최영의 웅혼한 시를 수록한 것과 맥락이 상통한다. 시화의 구성과 내용상의 중요한 대목에 웅혼과 웅건의 미의식이 거듭 등장하면서 시화의 시학적·사회적 지향이 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신채호에게 ‘웅혼’의 미의식은 시문에 국한되지 않고 현실 문제에도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장군의 기상을 지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시를 지향해야 한다. 자연히 시와 국가는 같은 미의식을 공유하게 되며, 이는 시풍의 웅건함이 당대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난을 극복할 실천적 기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신채호가 처음부터 최영의 시를 싣고 웅혼하다고 평가한 것, 그리고 작품 곳곳에 양강한 이미지의 시향을 적시한 것은 단순한 예술적 취향의 표출이라고 볼 수 없다. 연약한 시문을 즐겼던 나머지 혁명가를 배태하지 못하고 국권을 침탈당한 지식인에게 무장의 결기를 갖추고 나서서 행동하는 주체, 즉 지사로 거듭나길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긍정적 평어가 비판의 대상으로 변모한 경우로 ‘한담(閑談)’과 ‘염퇴(厭退)’를 들 수 있다. ‘한담’은 일상 속 자연 감상과 같이 미시적이고 여유로운 정서와 관련되는 풍격으로, 적극적이고 기개가 돋보이지는 않지만 지식인에게는 수양의 자세와 관련한 미덕의 일종이었다.

國詩로 言 訢 면

南薰殿 달발근데 八元八凱 거나리시고

흔 閑淡의 詩畵이며,

말업는 靑山 態度업는 流水
란 放狂의 詩畵이며,

말은 가자고 네굽을 쌍쌍치는디 님은잡고 落淚흔다
흔 淫蕩의 詩畵이며,

風波에 놀넨沙工 비폭라 말을사니
흔 厭退에 詩畵이오.

又 幾百年 以來로 漢詩가 一船 社會間에 盛行ᄃᆞᆫᄃᆞᆫ나 亦皆 此等語 此等意
이 아닌가. (13칙 중)

신채호는 당시 유행하던 시구를 제시하고 그 각각을 한담, 방광, 음탕, 염퇴의 시라고 평하였다. 이러한 네 종류의 시가 몇 백 년 동안 사회에 성행하였던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때 ‘방광’과 ‘음탕’은 글자와 인식 자체로도 이미 부정적인 평어인데 비해 ‘한담’과 ‘염퇴’가 거론된 것은 다소 이질적이다.

그가 ‘한담’의 예시로 든 구절은 달 밝은 밤의 태평하고 여유로운 정취를 노래한 작품이다. 그러나 행동하는 혁명가적 태도를 거듭 강조했던 「천희당시화」의 서술 태도를 염두에 둔다면 이는 그와 반대로 현실에 무감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의미하는 장면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즉 현실에 참여하고 행동해야 할 지식인의 책임을 저버린 이의 노래로 보아 ‘한담’의 정서를 비판의 대상으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특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염퇴’에 대한 비평이다. 신채호는 풍파에 놀라 배를 팔아버린 뱃사공의 모습이 드러난 시구를 ‘염퇴(厭退)’의 것이라 평하였다. 전통적으로 미덕으로 여겨졌던 ‘염퇴’는 厭이 아닌 恬자를 쓰며, 물러나서(退) 은거하는 선비들의 미덕을 형용하는 말로 사용되었다.¹²⁾

‘염퇴(恬退)’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를 쓰면서도 恬자를 厭자로 다르게 쓴 것을 두고 신채호가 의도한 바라고 단정하기는 조심스럽다. 다만 시구의 내용을 통해 내용적으로 비판의 의도가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풍랑 속에서도 배를 책임져야 할 사공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배를 팔아버려서 업을 단절하였다는 시구 속 상황은 국난 앞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물러난 지식인들의 도피적 태도를 연상케 한다. 전통적으로 은거지사의 미덕이었던 물러남이 여기서는 비겁한 회피 행위로 탈바꿈한 것이다. 저자의 의도이든 우연이든, 厭자가 삽입된 ‘염퇴’의 시평과 맥락은 「천희당시화」의 비판 의식을 드러내어 흥미로운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웅혼’의 미의식을 강화하고 ‘한담’과 ‘염퇴’의 미의식은 비판하는 변용은 궁극적으로 혁명 정신을 가진 선각자, 즉 지사를 호명하고 현실에 소환하고자 하는 「천희당시화」의 강한 의지와 결부된다.

申震澤 光河氏는 科詩로 鳴혼 者나 然이나 其實은 氏가 科詩에 長혼 뿐 아니라 漢文과 漢詩에 尤長혼며 又詩에 長혼 뿐 아니라 卽 其卓瑩혼 奇氣가 一世의 傑人이라 可稱혼지라. 性이 旅行을 喜혼야 八域의 山河를 閱覽혼며 其老年에 北遊혼야 白頭山에 登혼야

兩岸蒼崖三百里 女眞黃葉落朝鮮

의 句를 吟혼고 既歸인 朝廷에 奏혼야 兵을 養혼야 鴨綠江 以西 並呑혼을 主張혼나 時人이 皆 狂士로 目혼야 其言을 不用혼였스니 後來 志士의 同憾혼 비로다. 嗚呼라. 氏는 엇지 五百年 蕭條오恆혼 詩人과 並稱혼 者리오. (14칙 중)

12) 이원진, 「농암(農巖)의 경천(敬天)사상 - 聖俗間 거리두기를 위한 자연의 재발견 -」, 『동양철학연구』 109, 동양철학연구회, 2022, 13쪽.

조선 후기의 문인 신광하는 여행을 좋아하여 건문을 넓히고 그를 바탕으로 압록강 서쪽을 정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궤변 취급하였던 탓에 국방의 강화를 주장한 신광하의 선각자적 발언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14칙에는 ‘훗날의 지사가 함께 한탄할’ 일이라는 발언에서 직접적으로 지사를 언급하면서 과거의 고독한 선각자의 좌절이 현대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가 담겨 있다.

今에 先賢의 短歌 數節을 錄호노라.

退溪 詩曰

雷霆이 破山호나 聾者는 못듯나니
白日이 中天호야도 瞽者는 못보나니
우리는 耳目聰明 男子로 聾瞽 갓치 말으리라

金裕器 詩曰

春풍桃李花들아 고은빛을 즈랑마라.
長松綠竹을 歲寒에 보려무나
亭亭코 落落호節을 고칠줄이 잇스라

尹善道 詩曰

松間石室에 가서 曉月을 보려호니
空山落葉에 길어어이 차져가리.
어디서 白雲이 조차오니 女蘿衣가 무거워라. (15칙 중)

제시된 이황, 김유기, 윤선도의 시조는 어려움에 맞설 각오를 다지는 결연한 모습을 노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황의 시는 학문과 수신을 게을리하지 않을 다짐이지만 현실 참여의 면에서 본다면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관련된다. 또 김유기의 시는 흑한 속에서도 절의를 지키

는 의연하고 씩씩한 기상을 노래하고 있으며, 윤선도의 시는 목표를 향한 지난한 과정을 고독히 이행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즉 이들 작품은 시련과 고독에 임하더라도 꺾이지 않는 정신을 함의하는 텍스트이다.

결국 신광하의 선각자적 면모와, 이황·김유가·윤선도 시의 행동력과 결기는 모두 신채호가 호명하고자 했던 지사의 조건에 부합한다. 그는 지사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나열하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지사의 모습을 갖춘 이들의 시문과 일화를 수록함으로써 『대한매일신보』를 읽고 있을 지사를 호명하고자 했다.

今日 國家 前途에 留意호는 志士여 不可不 詩道를 振興함에 留意호지니라.
(13칙 중)

신채호에게 시를 새롭게 일으키는 일은 쇠락하는 국가를 일으키는 일과 같았다. 전통적인 미의식을 현실로 확장하거나 재편하는 다각적인 비평은 근대이행기 국권 침탈 이후 신채호의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천희당시화」는 단지 문학비평을 위한 시화가 아니라 시대의 필요에 응하는 지식인의 실천적 텍스트로 거듭날 수 있었다.

IV. 나가며

본고는 근대이행기에 출현한 「천희당시화」의 장르적 속성과 매체적 특성을 살핌으로써 근대이행기 시화로서의 특징과 의의를 고찰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천희당시화」가 단순한 고전문학 비평서가 아니라 시대적 위기의 극복을 위한 텍스트로 기능하였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천희당시화」가 기존 시화의 구성과 방법론을 계승하여 형식적·내용적 구성을 이룬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천희당시화」

가 시론과 시평, 일화의 3요소로 이루어진 잡록적 구성을 따르며 시화의 중심 의식을 누차 언급하고, 상무 정신을 표방하는 양강한 시적 지향을 강조하는 등 전통 시화의 구성을 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양 고전문학의 보편적 인식인 감화적 시가관을 전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천희당시화」가 근대이행기에 출현한 시화로서 저널리즘이라는 신매체를 통해 기존 시화보다 동시대에 집중된 시각을 견지하였음을 인물 구성과 주제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 긍정적 평어가 의미의 지속과 재해석을 거친 사례들을 바탕으로 「천희당시화」의 저술 의도는 당대의 최우선 현안이었던 지사의 호명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천희당시화」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예술적 완상에 머무르지 않고 시화의 장르적 관습을 계승하거나 변용하면서 독자에게 지향할 바를 제시하는 실천적 문학의 사례가 되었다. 「천희당시화」는 문학이 감상의 객체가 아니라 감화력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가 국운을 움직일 힘을 가진 실체임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한문과 더불어 쇠퇴해가던 고전 장르인 시화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신채호, 「천희당시화」, 『대한매일신보』 1909.11.9.-1909.12.4.
김주현, 「天喜堂詩話와 그 주석」, 『語文論總』 5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271-303쪽.

2. 단행본 및 논문 자료

- 김주현, 「『천희당시화』의 저자 확정 문제」, 『우리말글』 33, 우리말글학회, 2005, 271-306쪽.
박애경, 「민충정공 담론과 <혈죽가>류 시가 연구」, 『우리어문연구』 34, 우리어문학회, 2009, 161-189쪽.
박홍준, 「웅혼(雄渾) 풍격의 의미 고찰」, 『중국문학이론』 1, 한국중국문학이론학회, 2002, 211-230쪽.
안대회, 『한국 시화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4.
이승훈 편, 「천희당시화」, 『한국현대대표시론』, 태학사, 2000, 9-25쪽.
이원진, 「농암(壟巖)의 경천(敬天)사상 — 聖俗間 거리두기를 위한 자연의 재발견 —」, 『동양철학연구』 109, 동양철학연구회, 2022, 7-44쪽.
조민환, 「선비들의 예술세계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22, 한국유교학회, 2005, 393-414쪽.

3. 기타 자료

- 고전번역원DB, <https://db.itkc.or.kr>, 접속일: 2026.2.14.

Abstract

THE INHERITANCE AND TRANSFORMATION OF SIHWA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AND ITS
SIGNIFICANCE IN *CHEONHUIDANG SIHWA*

MAH YOONJI (MAH, YOON J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enre and media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critical orientation, of Shin Chae-ho's Cheonhuidang Sihwa, which emerged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Ultimately, it aims to clarify that the text functioned not merely as a classical literary criticism but as practical literature intended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era marked by the depriv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To this end, Chapter 2 first examines how Cheonhuidang Sihwa inherited the genre conventions and methodologies of traditional Sihwa (poetry criticism). Cheonhuidang Sihwa adopted a miscellany structure centered on poetic theory, poetry reviews, and anecdotes, and embraced an edifying view of poetry. By inheriting implicit poetry reviews centered on Pyeonge (critical terms) and the attitude of "poetry mirrors the person" (Siyeogiin), it faithfully secured its form as a classical criticism genre.

Next, Chapter 3 analyzes the contemporaneity and the transformation patterns of aesthetics in Cheonhuidang Sihwa, which appeared within the new modern media environment of journalism. Through newspaper serialization, Shin Chae-ho focused on the immediate issues facing the

intellectual society. In particular, by expanding or subverting the meanings and aesthetics of classical Pyeonge into reality, he made Cheonhuidang Sihwa a text that organically kept pace with the times. The aesthetics of Yanggang (masculine and strong), such as 'Unghon' (grand and vigorous) and 'Unggeon' (sturdy), were expanded into the driving force of the Jisa (righteous patriot) actions demanded by the era. On the other hand, traditional virtues like 'Handam' (leisurely talk) and 'Yeomtoe' (tranquil retirement) were reorganized into terms of criticism against inactive intellectuals.

Ultimately, this variation of Pyeonge was a critical method of Cheonhuidang Sihwa designed to call upon the Jisa—the revolutionary and pioneering subjects who would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of the time. In conclusion, Cheonhuidang Sihwa holds significance as a text of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that demonstrates both the potential of the traditional Sihwa genre, which was declining along with Classical Chinese, and the edifying power of literature to inspire people and the nation.

Key Words : Shin Chae-ho, Cheonhuidang Sihwa, Sihwa (Poetry Criticism), Pyeonge (Critical Terms), Jisa (Righteous Patriot), Inheritance, Transformation, Modern Transition Period